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12/19

2013년 올해를 빛낸 가수와 가요

음악이 없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지루할까요,
작년에는 ‘강남스타일’이 전세계를 K-POP과 함께 들썩이게 했다면
올해 우리 가요계는 중견가수들의 컴백, 복고, 힙합, OST, 아이돌 세대 교체 등
신구 세대와 여러 장르가 어우러져 그 깊이와 다양성이 더해진 한 해였습니다.
그 중에서 올 한 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는 누구일까요?

한국갤럽은 2005년부터 매년 말 그 해를 빛낸 각 분야 ‘올해의 인물’을 발표해 왔는데요, 지난
주부터 어제까지 올해 가장 사랑 받은 영화배우, 스포츠선수, 탤런트, 코미디언/개그맨을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2013년을 빛낸 가수와 가요’를 알려 드립니다.

한국갤럽이 뽑은 ‘올해의 가수/가요’는 앞서 발표한 각 분야 ‘올해의 인물’ 조사와는 달리,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국의 만 13세부터 59세 남녀 4,2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합산한 결과입니다. 조사 기간을 확장해 연말 인기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했고, 10대부터
50대까지 포함한 대규모 조사로 젊은층 위주의 가요 방송 프로그램이나 음원 순위 차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중장년층의 가수/가요 선호도까지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1차) 7월 18일~8월 5일, (2차) 9월 25일~10월 15일,
(3차) 11월 1~18일
2. 표본추출: 2단계 층화 집락 지역 무작위 추출-표본 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추출
→ (참고) [한국갤럽 옴니버스 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3.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3~59세 남녀 4,263명
5. 표본오차: ±1.5%포인트(95% 신뢰수준)
6.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올해를 빛낸 최고의 가수 1위, ‘가왕(歌王)’ 조용필 - 2위는 ‘월드스타’ 싸이
- 연령별 올해의 가수: 10대는 EXO, 20대는 씨스타 1위, 30대 이상은 조용필!
- 2013년 최고의 가요는 ‘바운스’ - 10대/20대는 EXO ‘으르렁’ 1위

올해를 빛낸 최고의 가수 1 위, '가왕(歌王)' 조용필 - 2 위는 '월드스타' 싸이

'가왕(歌王)' **조용필**이 한국갤럽의 '2013년을 빛낸 가수'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59세 남녀 4,263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활동한 가수 중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세 명까지 물은 결과, 조용필이 17.6%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조용필은 1979년(1집 타이틀곡 '창밖의 여자'-대한민국 최초 밀리언셀러) 공식 데뷔 후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35년 동안 가요계 정상을 지켜왔다. 1994년 우리나라 최초 음반판매량 1,000만 장을 돌파했으며 일본 음반판매량도 600만 장을 넘은 최초 한류스타로 평가된다. 올해 10년 만에 정규 19집 앨범 <헬로>를 발매, 젊은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세련된 감성의 '바운스', '헬로'를 선보여 가요계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특히 먼저 공개된 '바운스'는 빌보드 K팝차트 1위, KBS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위는 11.7%의 지지를 받은 '월드스타' **싸이**로, 지난 해 정규 6집 타이틀곡인 '강남스타일'이 말춤과 함께 전세계적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2012년을 빛낸 가수' 1위에 오른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공개한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6억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해, 작년 '강남스타일'에 이어 세계인이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동영상이 됐다.

3위는 '트로트퀸' **장윤정**(8.8%)이다. 장윤정은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를 대표하는 스타로 작년 10월 퓨전 트로트 '왔구나 왔어'를 발표했으며, 올 6월에는 KBS 도경완 아나운서와 결혼식을 치렀다. 현재 가족과의 불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트로트 팬들의 꾸준한 응원에 힘입어 작년 5위에서 2계단 상승했다.

4위는 'K팝의 새로운 아이콘' **EXO**(엑소)로, 8.4%의 지지를 얻었다. EXO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의 12인조 남성그룹으로 2012년 1월 프롤로그 싱글인 'What Is Love'를 발표했으며 4월 미니앨범 <MAMA>로 공식 데뷔했다. 2013년 '늑대와 미녀', '으르렁', '12월의 기적'으로 각종 음원 차트와 음악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고, <2013 Asian Idol Awards> 아시아 인기그룹상, <Melon Music Awards> 베스트송상, <Mnet Asian Music Awards> 올해의 앨범상 등을 휩쓸며 10대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로 부상했다.

5위는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8.3%)였다. 소녀시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회 연속 '올해를 빛낸 가수' 1위였으며 작년 2위에서 3계단 하락했지만 높은 인기는 여전하다. 올해 1월 정규 4집 <I Got A Boy>를 발매, 그 뮤직비디오가 역대 K-POP 사상 최단 시간 2,000만 뷰를 달성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6월에는 일본에서 싱글 'Love & Girls'를 발표했고, 지난 12월 11일 선보인 일본 정규 3집 <Love & Peace>가 발매 첫 주 주간 차트 1위에 선정됐다. 윤아, 수영, 유리 등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개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싸이'와 더불어 한류의 주역으로 전 세계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6위는 올해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서 열연 후 ‘분홍신’으로 복귀한 ‘국민 여동생’ **아이유**(8.1%), 7위는 ‘있다 없으니까’로 2013년 빌보드 K팝 차트 1위를 차지한 ‘섹시 걸그룹’ **씨스타**(7.6%), 8위는 ‘My Love’를 히트시킨 ‘말라드 황제’ **이승철**(6.6%), 9위는 ‘빠빠빠’와 함께 귀여운 직렬 5기통 춤을 선보인 **크레용팝**(6.5%)이었다. 10위는 올해 정규 앨범 없이 제각각 활동을 펼친 **지드래곤/빅뱅**(6.4%)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지드래곤은 솔로 2집 <쿠테타>의 여러 곡을 각종 차트 상위권에 올리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그 외 버스커버스커(5.0%), 비스트(4.6%), 에이핑크(4.4%), 걸스데이(4.2%), 인피니트(4.0%), 티아라(3.3%), 이효리(3.2%), 샤이니(3.2%), 로이킴(2.8%), 태진아(2.7%)가 20위권에 들었다.

▶ 2013년을 빛낸 가수 - 상위 10위 (3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이름	%	대표곡
1위	조용필	17.6	바운스, 헬로
2위	싸이	11.7	젠틀맨
3위	장윤정	8.8	왔구나 왔어
4위	EXO	8.4	늑대와 미녀, 으르렁, 12월의 기적
5위	소녀시대	8.3	I Got a Boy
6위	아이유	8.1	분홍신
7위	씨스타	7.6	있다 없으니까, Give It To Me
8위	이승철	6.6	My Love
9위	크레용팝	6.5	빠빠빠
10위	지드래곤/빅뱅	6.4	삐딱하게, 블랙, 니가 뭔데, 날리리아

질문) 올해 들어 활동한 ‘대중가요 가수/그룹’ 중에서 귀하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그룹은 누구입니까?
좋아하는 순서대로 3 사람/그룹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3 명까지 자유응답)

▶ 올해를 빛낸 가수 - 최근 7년간 추이 (3명까지 자유응답, 단위: %)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위	원더걸스(28.2)	원더걸스(22.2)	소녀시대(29.8)	소녀시대(31.5)
2위	빅뱅(16.8)	빅뱅(21.2)	빅뱅(21.1)	2PM(12.5)
3위	장윤정(11.0)	장윤정(9.9)	2PM(12.5)	장윤정(11.6)
4위	소녀시대(9.9)	소녀시대(7.8)	원더걸스(10.4)	태진아(8.4)
5위	SG워너비(9.8)	이효리(6.5)	장윤정(9.6)	카라(7.7)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1위	소녀시대(26.1)	싸이(24.4)	조용필(17.6)	
2위	빅뱅(8.2)	소녀시대(19.8)	싸이(11.7)	
3위	장윤정(6.9)	빅뱅(9.5)	장윤정(8.8)	
4위	김범수(6.3)	아이유(6.9)	EXO(8.4)	
5위	아이유(6.0)	장윤정(6.6)	소녀시대(8.3)	

연령별 올해의 가수: 10대는 EXO, 20대는 씨스타 1위, 30대 이상은 조용필!

좋아하는 가수는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 10대는 EXO, 20대는 씨스타, 30대 이상은 조용필을 최고로 꼽았다. 한편, 크레용팝, 에이핑크, 걸스데이의 10대가 좋아하는 가수 상위권에만, 장윤정, 이승철, 태진아는 40대 이상 선호 가수 상위권위에만 나타났다.

▶ 2013년을 빛낸 가수 - 연령별 (상위 5위, 3명까지 자유응답, 단위: %)

순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위	EXO(27.4)	씨스타(12.5)	조용필(14.7)	조용필(29.6)	조용필(31.2)
2위	크레용팝(12.3)	EXO(11.5)	싸이(12.9)	싸이(17.4)	장윤정(20.0)
3위	GD/빅뱅(11.9)	아이유(11.1)	소녀시대(12.0)	장윤정(12.4)	싸이(12.9)
4위	에이핑크(11.4)	GD/빅뱅(9.9)	씨스타(10.6)	이승철(10.6)	태진아(9.1)
5위	걸스데이(11.4) 비스트(11.4)	소녀시대(9.7)	아이유(10.0)	아이유(7.9)	이승철(5.9)

▶ 2013년을 빛낸 가수 - 성/연령별 (상위 10위, 3명까지 자유응답, 단위: %)

	표본수 (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조용필	싸이	장윤정	EXO	소녀시대	아이유	씨스타	이승철	크레용팝	GD/빅뱅
전체	4,263	17.6	11.7	8.8	8.4	8.3	8.1	7.6	6.6	6.5	6.4
성 남	2,188	18	12	9	6	<u>10</u>	9	9	6	7	6
별 여	2,075	17	11	9	<u>11</u>	7	7	7	7	6	7
연 10대	703	2	5	1	<u>27</u>	8	10	9	2	<u>12</u>	<u>12</u>
령 20대	746	3	8	2	12	10	11	<u>13</u>	4	9	10
별 30대	907	15	13	5	7	12	10	<u>11</u>	<u>9</u>	8	7
40대	1,000	<u>30</u>	<u>17</u>	12	2	7	8	5	<u>11</u>	3	4
50대	907	<u>31</u>	13	<u>20</u>	0	6	2	2	6	2	2
남성 10대	369	2	5	1	<u>18</u>	10	<u>13</u>	10	2	<u>14</u>	<u>10</u>
20대	389	4	8	4	10	11	<u>12</u>	<u>12</u>	5	<u>12</u>	7
30대	463	14	14	4	5	<u>16</u>	11	<u>13</u>	<u>9</u>	7	7
40대	510	<u>31</u>	<u>18</u>	14	0	7	7	7	<u>10</u>	4	4
50대	457	<u>33</u>	14	<u>18</u>	0	7	3	2	5	3	2
여성 10대	334	1	5	0	<u>38</u>	5	7	9	1	<u>11</u>	<u>14</u>
20대	357	2	7	1	13	9	10	<u>14</u>	2	5	<u>13</u>
30대	444	15	12	6	8	7	9	8	<u>10</u>	9	7
40대	490	<u>28</u>	<u>17</u>	11	3	7	8	4	<u>12</u>	3	3
50대	450	<u>29</u>	12	<u>22</u>	1	4	2	1	7	2	2

질문) 올해 들어 활동한 '대중가요 가수/그룹' 중에서 귀하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그룹은 누구입니까?
좋아하는 순서대로 3 사람/그룹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3 명까지 자유응답)

2013년 최고의 가요는 '바운스'

2013년 최고의 가요는 조용필의 '바운스'(13.6%)였다. '바운스'는 조용필 정규 19집 <헬로> 앨범 수록곡으로 가요계와 팬들에게 가장 먼저 '가왕'의 귀환을 알린 곡이다.

- 2위는 '강남스타일' 이후 다시 한 번 전세계에 싸이를 알린 '젠틀맨'(8.3%),
- 3위는 독특한 의상과 안무로 재미를 준 크레용팝의 '빠빠빠'(7.9%),
- 4위는 '10대 아이콘' EXO를 대표하는 최고 히트곡 '으르렁'(7.6%),
- 5위는 소녀에서 숙녀로의 변신을 알린 아이유의 '분홍신'(5.5%)이 차지했다.

그 외 'No No No'(에이핑크, 3.3%), '봄봄봄'(로이킴, 2.9%), '나란 놈이란'(임창정, 2.9%), '이름이 뭐예요'(포미닛, 2.9%), 'My Love'(이승철, 2.8%)가 10위권에 들었다.

▶ 올해의 가요 - 최근 7년간 추이 (3곡까지 자유응답, 단위: %)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위	Tell me(33.9) 원더걸스	Nobody(11.4) 원더걸스	Gee(15.0) 소녀시대	훗(7.2) 소녀시대
2위	거짓말(17.2) 빅뱅	하루하루(9.3) 빅뱅	소원을 말해봐(6.7) 소녀시대	오(2.9) 소녀시대
3위	소녀시대(5.6) 소녀시대	So Hot(5.5) 원더걸스	토요일밤에(5.1) 손담비	죽어도 못 보내(2.2) 2AM
4위	사랑은 맛있다(3.1) 휘성	유고걸(3.6) 이효리	Again&Again(4.4) 2PM	치티치티 뱅뱅(2.1) 이효리
5위	사랑 하나면 돼(2.8) 백지영	라라라(3.1) SG워너비	Sorry Sorry(4.2) 슈퍼주니어	언제나(1.9) 허각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1위	좋은날(3.9) 아이유	강남스타일(30.7) 싸이	바운스(13.6) 조용필	
2위	롤리폴리(3.3) 티아라	나혼자(3.2) 씨스타	젠틀맨(8.3) 싸이	
3위	The Boys(2.7) 소녀시대	벚꽃엔딩(2.8) 버스커 버스커	빠빠빠(7.9) 크레용팝	
4위	직감(2.6) 씨엔블루	트윅클(1.9) 소녀시대-태티서	으르렁(7.6) EXO	
5위	So cool(2.1) 씨스타	아름다운밤이야(1.5) 비스트	분홍신(5.5) 아이유	

질문) 올해 들어 발표됐거나 불려진 '대중가요' 가운데 귀하가 가장 좋아하는 가요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순서대로 곡명과 그 곡을 부른 가수/그룹을 3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3 곡까지 자유응답)

10/20대는 EXO '으르렁' 1위, '빠빠빠'와 '젠틀맨'은 전 연령대 아울러

올해 최고의 가요 역시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 10/20대는 EXO '으르렁'을, 30대 이상은 조용필의 '바운스'를 최고로 꼽았다. 에이핑크의 'No No No'는 10/20대 상위권에만 들었지만, '빠빠빠'와 '젠틀맨'은 1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보였다.

▶ 2013년 올해의 가요 - 연령별 (3곡까지 자유응답, 단위: %)

순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위	으르렁(21.8) EXO	으르렁(10.8) EXO	바운스(12.8) 조용필	바운스(24.4) 조용필	바운스(20.2) 조용필
2위	빠빠빠(14.0) 크레용팝	빠빠빠(10.7) 크레용팝	젠틀맨(9.7) 싸이	젠틀맨(11.4) 싸이	젠틀맨(7.7) 싸이
3위	No No No(9.1) 에이핑크	분홍신(6.0) 아이유	빠빠빠(8.9) 크레용팝	분홍신(5.3) 아이유	헬로(3.7) 조용필
4위	분홍신(8.6) 아이유	젠틀맨(5.9) 싸이	분홍신(7.0) 아이유	빠빠빠(5.1) 크레용팝	빠빠빠(3.2) 크레용팝
5위	젠틀맨(5.3) 싸이	No No No(5.8) 에이핑크	으르렁(6.4) EXO	헬로(4.4) 조용필	My Love(2.1) 이승철